

모미지엔과 도모에가오카 산장

모미지엔(단풍 정원)의 광활한 부지에는 수령 150년이 넘는 단풍나무와 벚나무 등 약 400그루의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정원과 전통적인 도모에가오카 산장은 원래 인접한 가미야 지구의 대지주였던 다카하시 가문을 위해 189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모미지엔은 공공 정원이 되어 봄에는 벚꽃 명소가 되고, 가을에는 10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 단풍이 피는 시기에 단풍 축제가 개최되며, 특히 야간 조명에 비치는 고운 빛깔의 단풍이 인기 있습니다.

정원 입장은 무료이지만,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인 도모에가오카 산장의 가이드 투어(일본어만 대응 가능)는 200엔의 비용과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모미지엔의 휴원일은 수요일이며 겨울철(12월~3월)에는 문을 닫습니다. 정원의 입구 근처에 있는 ‘다카구구라 Cafe’는 전통 있는 아담한 창고를 새롭게 단장한 곳으로 음료와 디저트, 간단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카페의 영업일은 월, 화, 목, 금요일입니다.

모미지엔

모미지엔의 면적은 약 4,000m² 입니다. 정원의 이름처럼 광활한 부지의 많은 나무들이 단풍나무들입니다. 정원을 설립할 때 교토에서 5종류의 단풍나무를 특별히 들여왔으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일본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온 이로하모미지입니다.

정원에는 왕벚나무와 산벚나무도 있습니다. 이곳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왕벚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도쿄에서 묘목을 들여와 실험적으로 심은 최초의 정원입니다. 지금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있으며, 봄철 개화 시기에는 정원을 사랑스러운 분홍빛으로 수놓습니다.

정원 내 길을 따라 진달래, 백합, 등꽃, 수국 등 제철 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또한 부지 내에는 자비를 상징하는 관음보살과 의약을 관장하는 부처인 약사여래와 같은 돌부처도 안치되어 있습니다. 모미지엔의 동쪽에 있는 전망대에서는 시가지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도모에가오카 산장

모미지엔의 설계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다카하시 가문의 별장이었던 도모에가오카 산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장의 건설을 명한 사람은 10대 당주인 다카하시 구로(1851-1922년)입니다. 정치가였던 그는 일본이 급속도로 공업화된 시대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썼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개혁자인 시드니 웹(1859-1947년)과 그의 아내로 사회학자이자 사회경제 연구자인 베아트리스 웹(1858-1943년)을 비롯한

많은 유력 인사들이 산장을 방문해 다카하시 구로와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산장은 단층 건물에 우진각 지붕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에는 다실 외에도 ‘벚꽃 방’, ‘단풍 방’, ‘이로리 화로 방’, ‘소나무 방’ 등 시적인 이름이 붙여진 전통적인 다다미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단풍 방에서 바라보는 단풍 정원은 산장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로 꼽힙니다.